

제 318호 · 2015년 8월 5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밴쿠버항, 컨테이너선박용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예정
2. GLP, 미국 200개 물류창고 46억 달러에 매입 예정
3. 올 상반기 C.H. 로빈슨의 순이익과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
4. 만사니요 멕시코 터미널, 미주 지역 최초 전기 터미널로 전환

물류시장동향

1. 러시아, 바니노 석탄터미널 개발지원
2. DP World社, 두바이항 개발에 16억 달러 투자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한·러 물류 협력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밴쿠버항, 컨테이너선박용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예정

- Metro Vancouver항은 Deltaport와 Centerm 터미널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항만의 해상 전력 기술(shore power technology)을 가지고 있는 Transport Canada사와 Metro Vancouver항이 각각 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할 예정임
- 이 설비는 선석에서 컨테이너선박의 유해 디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7년 3월 31일에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임
 - 육상전원공급장치는 선박이 항만에 접안해 있는 동안 디젤 엔진을 정지시키고 육상의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유해 디젤 배출량을 감소시킴
 - 항만당국은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로 75톤의 디젤 배출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Metro Vancouver항은 2009년에 크루즈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¹⁾를 설치한 최초의 캐나다 항만으로, 항만당국은 이 설비장치로 11,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했다고 밝힘
- Vancouver항의 컨테이너선박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은 Seattle항과 Tacoma항들과 연대하여 공동 노력 중인 “북서항만 청정 대기 전략(Northwest Ports Clean Air Strategy)”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항만당국 CEO인 Robin Silvester씨는 Metro Vancouver항은 지역 사회를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캐나다 무역을 활성화시켜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또한 Vancouver와 Delta 지역의 컨테이너터미널에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는 노력은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항만의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joc.com, 2015.7.23.

이언경 전문연구원 (☎ 051-797-4682, eklee@kmi.re.kr)

1) 육상전원공급장치: on-shore power facilities,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 GLP, 미국 200개 물류창고 46억 달러에 매입 예정

-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글로벌 물류 투자업체 GLP(Global Logistics Properties)는 46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Industrial Income Trust Inc.로부터 200개의 물류창고를 매입할 예정임
- 미국에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된 이 금액은 달러화 기준 올해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거래 금액임
- GLP는 올 2월 8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 물류창고 시장에 진출했음

<GLP 물류창고 내부전경>



자료 : supplychain.logistics-business-review.com, www.scmp.com

- GLP는 이번 투자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및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20개의 주요 시장에 5,800만 sq ft에 달하는 물류 부지를 확보할 예정임
- 이번 투자를 포함하여 총 1억 7,300만 sq ft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물류 부동산 소유주 및 운영자가 될 예정임
- 이를 통해 GLP의 미국 자산은 50%가량 증가될 예정임
- 이번 거래는 올 11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이며 완료시 GLP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총 5억 sq ft 규모로 33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
- 인수 할 물류 창고는 평균적으로 93% 이상이 임대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통상 5년 반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 supplychain.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7.29.

신수용 전문연구원 (☎ 051-797-4780, shinsy@kmi.re.kr)

□ 올 상반기 C.H. 로빈슨의 순이익과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글로벌 물류기업인 C.H. 로빈슨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net income)과 매출액(revenues)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1%와 3% 증가했음
-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2억4천4백만 달러로, 특히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억3천7백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5.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 또한 C.H. 로빈슨의 올해 상반기 주당순익은 0.8달러에서 17.5% 증가한 0.94달러를 기록했으며, 2분기 주당순익 역시 1.43달러에서 16.8% 증가한 1.67달러를 기록했음
- C.H. 로빈슨의 올해 상반기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분기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 3% 증가한 35.5억 달러와 86.8억 달러를 기록했음
- C.H. 로빈슨의 매출액 증가는 올해 2/4분기 트럭운송분야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4분기 트럭운송분야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음
- 트럭운송분야의 높은 성장은 작년 연말 인터넷 기반의 화물브로커 업체인 Freightquote의 인수로 인해 미국내 트럭운송분야 시장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 Freightquote는 캔자스시티(Kansas City)에 기반을 두고 북미 전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물류 업체로, C.H. 로빈슨은 미국내 도로운송분야 점유율 증대 전략에 따라 작년 12월, 3억6,500만 달러에 Freightquote를 인수했음
- C.H. 로빈슨의 John Wiehoff 회장은 "LTL(Less than truckload) 운송분야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5.8% 증가했으며, 이것은 Freightquote의 인수 결과"라고 언급함
 - 또한 "인터모달(intermodal) 분야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했으며, C.H. 로빈슨의 Freightquote 인수 전략으로 상반기 미국내 시장점유율 상승효과를 비롯하여 전체 매출액 증가분의 약 10%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임

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5.7.29.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 만사니요 멕시코 터미널, 미주 지역 최초 전기 터미널로 전환

- SSA 멕시코 항만운영사의 만사니요(Manzanillo) 멕시코 터미널은 미주 지역에서 전기로만 운영되는 최초의 터미널이 됨
 - 전기 RTGC 솔루션 제공 업체인 컨덕티스-웜플퍼(Conductix-Wampfler)사는 만사니요 멕시코 터미널의 전기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힘

<SSA Mexico항의 E-RTG>



자료 : www.container-mag.com

- SSA 멕시코사는 '12년부터 기존 디젤을 사용하던 RTGC를 개량하여 전기화 하는 작업을 착수함
 - 또한 SSA 멕시코사는 향후 2년 반 동안 32개의 RTGC를 추가로 전기화하는 작업을 착수하며 컨덕티스-웜플퍼사의 케이블드럼(Cable reels)이 장착되고 중국의 지피엠씨(ZPMC)사에서 생산되는 4기의 전기화 RTGC(E-RTGs)를 추가 구입한다고 밝힘
- SSA 멕시코사 크레인 유지·보수팀의 가브리엘 주리(Gabriel Juri) 팀장은 전기화된 RTGC의 성과가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밝힘
 - 특히 디젤 기반의 RTGC 보다 더욱 빠르고, 생산성이 높으며, 추가 연료 보급이 필요 없고, 디젤 엔진기반의 RTGC처럼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밝힘
- SSA 멕시코사는 향후 만사니요 멕시코 터미널의 디젤 사용량이 95%가량 감소될 것이며 유지·보수 비용 역시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container-mag.com, 2015.7.31.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o@kmi.re.kr)

물류시장동향

□ 러시아, 바니노 석탄터미널 개발지원

- 러시아 정부는 하바롭스크 변경에 위치한 바니노 석탄터미널 개발을 위해 3조 2,770억 루블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4,995억 루블을 투입할 계획임
- 러시아 정부는 석탄 전용 터미널 건설을 통해 석탄 생산량을 확대하고, 우르갈(Urgal) 지역에 석탄 선별 작업을 위한 가공시설을 구축하고자 함
- 민간투자로는 사하트란스(Sakhtrans)가 약 190억 루블을 투자하여 터미널 내 석탄 처리 인프라 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면, 우르갈우골(Urgalugol)에서 약 230억 루블을 투자하여 석탄 선별 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 이외 운송 인프라 등의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해 약 1조 5,490억 루블이 투입될 예정임

자료 : portnews.ru, 2015.7.30.

김은미 연구원 (☎ 051-797-4778, usea1004@kmi.re.kr)

< 석탄 터미널 위치 >



자료 : www.sakhtrans.com

□ DP World社, 두바이항 개발에 16억 달러 투자

- DP World는 처리능력과 선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6억 달러 상당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 중이라고 발표함
- 제벨 알리(Jebel Ali) 항만을 보유한 DP World는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2015년 하반기까지 제3터미널에 처리능력 200만 TEU급 부두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임
- 향후 개발 예정인 제4터미널은 2018년을 목표로 항만의 총 처리능력이 2,210만 TEU에 달하도록 310만 TEU급 부두 시설을 갖출 예정임
 - 선사들의 초대형 선박을 본터미널에서 처리 가능
 - 제4터미널이 완공되면 길이 11km의 부두에 110개의 크레인이 운영될 예정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7.29.

황윤희 연구원 (☎ 051-797-4786, hwangyh@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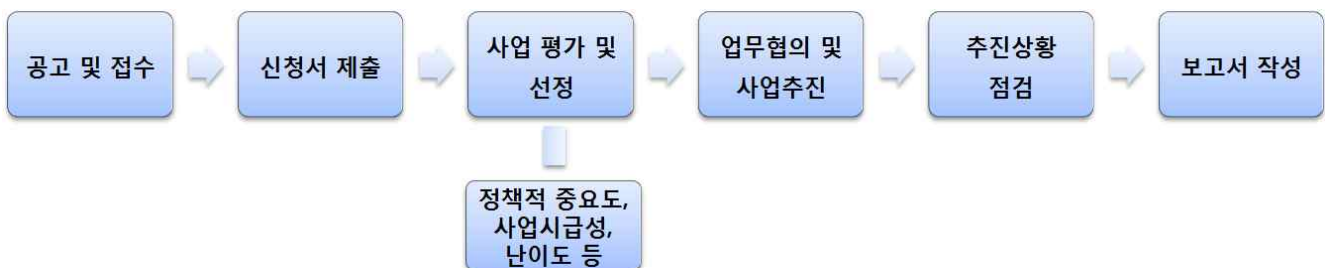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 한·러 물류 협력세미나 개최 >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가 주관하는 '한·러 물류협력 세미나'가 다가오는 9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 18일(금)
- 장 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주 최 : 해양수산부
- 주 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

- 참가신청
 - 신청기한 : 8월 15일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e-mail: harimy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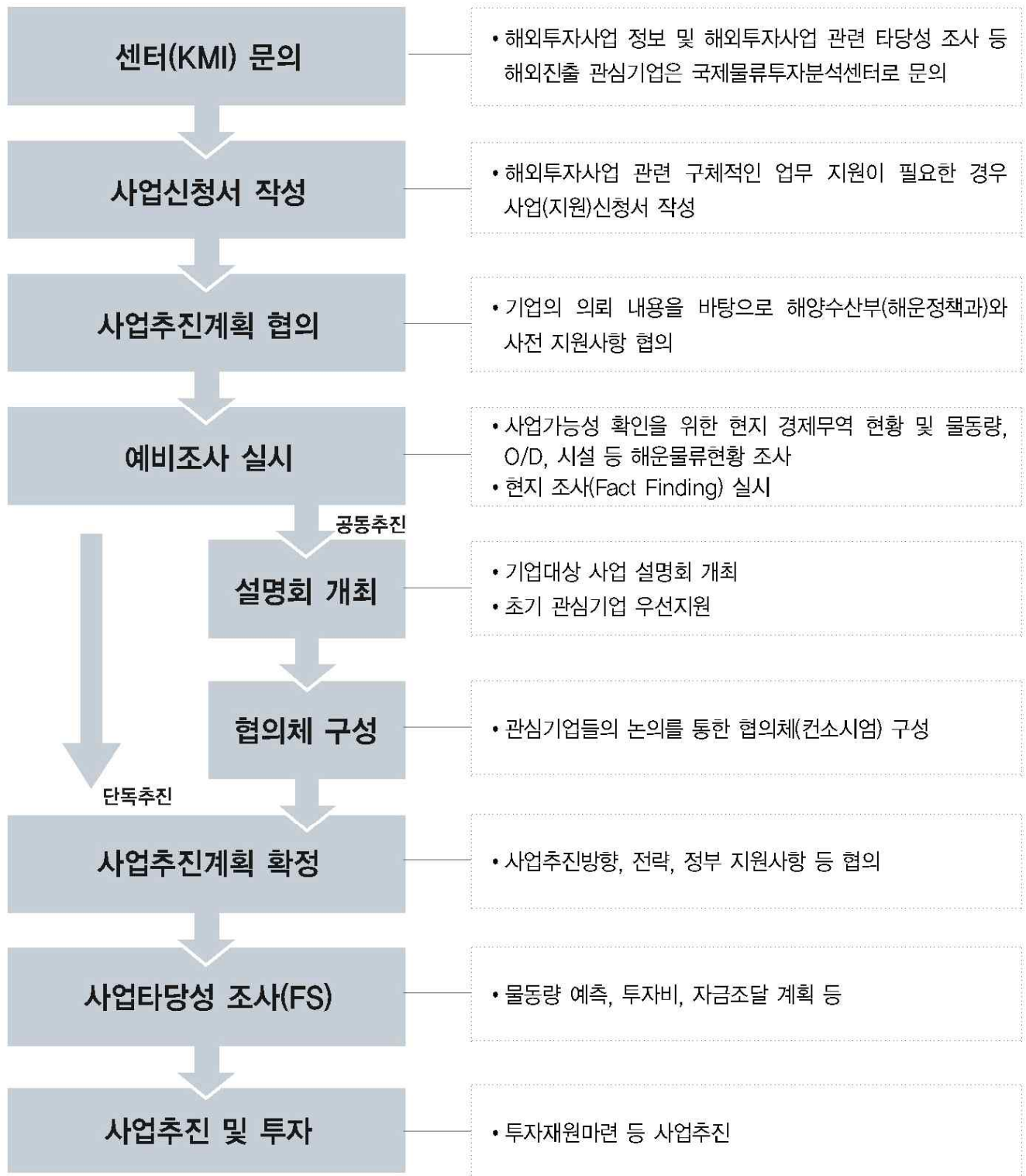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문 의
 - KMI 국제물류연구실 이하림 연구원 Tel. 051-797-4758
 - KRBC 서하늘 과장 Tel. 02-561-030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드림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